

# 여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전희정<sup>1\*</sup>, 이순덕<sup>2</sup>

<sup>1</sup>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sup>2</sup>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The moderating effects of attribution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ee-Jeong Jeon<sup>1\*</sup>, Soon-Doek Lee<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wangju Women's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Namb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여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귀인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85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검사와 진로준비행동 및 귀인성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또 진로정보가 부족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이었다. 둘째, 귀인성향 중 내적이고 통제가능한 노력에 귀인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이었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자대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주는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귀인성향, 진로준비행동, 진로상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attribution styl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ttribution styl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this purpose, career barrier test, preparation behavior, and attribution style test were conducted on 485 female college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3.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perceived barriers by female college student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cond, the more internal and controllable the attribution, the more active the career behaviors. Thir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attribution styl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for female college student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barriers, Attribution sty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counseling

\*Corresponding Author : Hee-Jeong Jeon(jenny@kwu.ac.kr)

Received October 2,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5,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 1. 서론

진로의 선택과 준비는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로 진로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1]. 우리나라는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인 진로준비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로선택과 준비의 결정적 시기는 대학생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함과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이 힘들수록 대학생들은 대학단계가 자신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시기라고 여긴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에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나면서 직업과 관련된 포부를 제한한다[2]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진로장벽이다[3]. 진로장벽은 남녀 모두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1]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수준이 높고[4], 여자 대학생의 경우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대학생보다 더 많은 진로장벽에 부딪치며 이러한 진로장벽의 지각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 진로결정, 학습동기,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5, 6]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이 중요한 문제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인지와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인 차원의 행동을 의미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결정사항을 실행해가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7]이다. 취업준비를 빨리 시작할수록, 취업과 관련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의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8]를 보더라도 진로발달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이렇게 만들어 낸 주관적인 진로가 진로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9]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진로준비에 대한 실천이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거나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진로선택을 방해한다는 관점에서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단순한 선형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진로장벽의 하위요

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10]도 있고 심지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11]도 보고되는 등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이 진로장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서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발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12]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진로와 관련한 발달에 내적 특성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귀인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진로행동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귀인성향의 차이가 개인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진로행동의 여러 변인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13, 14]. 귀인은 사람들이 어떤 사태나 결과의 원인을 탐색하는 추론행위로, 사태의 원인을 설명하는 습관화된 귀인방식에서의 개인차를 말한다[15]. 즉, 귀인성향은 어떤 사태에서 원인을 추론하는 지각성향으로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동일한 사건이나 결과라도 정보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속성에 따라 귀인성향은 차이가 나며 개인의 귀인성향을 살펴봄으로써 뒤따르는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다[16]. 다시 말해 사회적, 개인적 다양한 요인들이 진로장벽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지만 현재의 여건 속에서 여성으로써 겪게 되는 진로장벽에 대한 어려움은 개인 내적인 특성인 귀인성향에 따라 후속되는 행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Weiner(1995)는 귀인성향을 안정성, 소재, 통제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17]. 그리고 이 차원 가운데 소재 차원은 정서와 연결되어 최종적으로는 행동적 결과에 반영이 되어 동기화된 행동을 유발하거나 과제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통제가능 귀인성향과 통제불가능 귀인성향으로 분류되는 통제차원은 개인적 책임감과 연관되어 후속되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17]고 보았다. 지금까지 귀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학업성취에 치중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귀인성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재와 통제에 따른 분류의 대표적 하위 요인인 노력과 운에 귀인하는 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능동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준비를 통한 직업세계의 적응을 돕기 위해 그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진로준비

행동이 잘 이루어져야 함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 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진로장벽과 귀인성향을 가정하고 여자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진로준비행동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의 내적 또는 외부환경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충분한 직업 정보를 갖지 못해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의미하는 직업정보의 부족 요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 필요성인식 부족 요인으로 구분된다[18].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는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포부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우며[19],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진로준비행동이 낮다는 결과구주를 이루고 있다.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해요인을 지각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관적이다[18]. 그러므로 진로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로장벽 자체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가가 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지각정도에 따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20]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내면적이고 주관적 요인으로 파악된 진로장벽 요소는 단기간의 조력에 의해 변화가능성이 높고 개선효과가 크며 전문가의 개입과 조력으로 극복가능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1].

### 2.2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발달이 인지와 행동의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 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7].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22]를 보더라도 진로발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준비에 대한 태도나 인지가 되어있어도 준비행동이 없으면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과 함께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내적 자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의 진로탐색도 중요하지만 실재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를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아진다[23].

### 2.3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에 개인이 다양한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련된다는 연구들[24, 25]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6],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27, 28]을 통해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도 있지만 이외는 달리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거나[10] 심지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11]하기 때문에 두 변인의 관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가 상호 직선적이라기보다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25]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연구결과는 이들의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둘을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0].

### 2.4 귀인성향

귀인은 사람들이 어떤 사내나 결과의 원인을 탐색하는 추론행위이며, 귀인성향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의 원인을 설명하는 습관화된 귀인방식에서의 개인차를 말한다[15]. Weiner(1995)는 구체적인 결과보다 귀인의 기초가 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정성, 소재, 통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17]. 이러한 차원은 분석을 통해 소재차원은 행동이나 결과의 원인들을 개인의 내적인 특성과 관련되는지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안정성 차원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하고, 통제가능성은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자마다 귀인성향을 구성하는 차원들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소재와 통제의 두 차원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그리고 이 차원 가운데 소재 차원은 능력이나 노력은 내부 소재이고 운이나 타인의 영향은 외부소재라고 볼 수 있다. 또 통제가능 귀인성향과 통제불가능 귀인성향으로 분류되는 통제는 노력의 경우는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능력, 운, 타인의 도움의 경우는 통제불가능한 요인으로 본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후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귀인 이론은 개인의 귀인 성향과 동시에 관련한 연구에서 성공과 실패 모두를 내적요인으로 귀인하면서도 가변성이 있고 통제가 가능한 노력에 귀인할수록 높은 성취를 보였다[29, 30]. 또 내적으로 귀인하는 성향은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즉각적인 육구의 충격을 억제하고 즉 만족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타고난 능력이나 운 등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귀인하는 것보다 동기가 더 높아지고 성취가 높아짐[31]을 보여준다. 이처럼 귀인 성향은 추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5 진로장벽과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귀인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진로행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귀인성향은 개인적 요소로 이러한 성향의 차이는 여러 매개변인들을 통해 진로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32]. 예를 들어, 사태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귀인한다면 많은 학습동기 관련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태의 원인이 나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지각한다면 나의 영역 밖으로 인지하면서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재와 통제 차원 구분에서 내적 소재와 통제가능으로 분류되는 노력과 외적 소재와 통제 불가능으로 분류되는 운은 진로준비행동에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33]를 통해 같은 환경이라도 모두 동일한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 따라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것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을 토대로 귀인성향이라는 인지적 요소에 의해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 귀인성향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체화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여자 대학생의 귀인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 시에 위치한 A대학교의 500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의 15명을 제외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43명(29.5%), 2학년이 128명(26.4%), 3학년 87명(17.9%), 4학년 127명(26.2%)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전공별로는 교육분야 130명(26.8%), 인문사회분야 153명(31.67%), 의료보건분야 166명(34.2%), 기타 분야 36명(7.4%)로 분포되어 있다.

### 3.3 측정 도구

#### 3.3.1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Ko[34]가 Tak과 Lee[35]가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장애검사 도구를 수정한 후 설문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한 검사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 활용한 문항은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 직업정보 부족 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3문항, 필요성 인식부족 4문항 등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장벽 측정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81, 직업정보 부족이 .89, 자기명확성 부족이

.85, 필요성인식 부족이 .86으로 측정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다.

### 3.3.2 귀인성향

귀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Levenson[36]이 개발한 귀인성향검사를 기초로 하여 Yoo[37]가 여러 차례의 예비 검사와 요인분석을 거쳐 개발한 귀인성향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귀인성향인 ‘노력’(6문항)과 외적 소재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귀인성향인 ‘운’(8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sup>. Lee와 Gim의 연구[38]에서 Cronbach’s  $\alpha$  =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귀인성향의 하위차원별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귀인성향인 ‘노력’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으며, 외적 소재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귀인성향인 ‘운’의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귀인성향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3.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Kim[39]이 개발한 총 16문항과 인터넷 정보 사이트들의 활용과 각 대학마다 상담센터들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두 문항을 추가하여 총 1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4문항, 목표달성활동 8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 후 변수로 투입하였다. Kim[3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91로 기존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내적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종속변수로 모든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 3.4 절차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진로장벽검사와 진로준비행동 및 귀인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사전에 검사 실시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연구조교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소요 시간은 15분

1)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도였다. 검사는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의 15부를 제외한 48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5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했고,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년,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귀인성향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에 앞서 주요변수 간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앞서 서술한 연구문제의 검증 즉,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귀인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사이 귀인성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 최소자승법)방식을 활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중간값보다 높은 진로준비행동(Mean = 2.9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장벽은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필요성 인식은 가장 낮게 인식되는 진로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성향을 내적 소재와 통제가능(노력)과 외적 소재와 통제 불가능(운)으로 분류하였을 때, 내적소재와 통제가능(노력)에 대한 귀인성향이 외적소재와 통제불가능(운)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에서 제시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ain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Mean	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career preparation	485	2.99	0.679	1	5
career barriers (mean)	485	2.62	0.616	1	4.59

career barriers	Indecisive nature	485	2.94	0.782	1	4.75
	Lack of Information on career	485	2.69	0.785	1	5
	Lack of self-clarity	485	2.68	0.882	1	5
	Lack of awareness of necessity	485	2.16	0.809	1	5
attribution style	effort (controllable)	485	3.83	0.511	2.50	5
	luck (uncontrollable)	485	3.21	0.558	1.25	4.88

#### 4.2 상관관계분석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여자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 귀인성향 등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외적 소재 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귀인성향인 ‘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평균과 하위차원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그 관계성이 크지는 않지만(.3이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성향 중에서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 가능한 노력의 경우에는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성향 중 외적 소재와 통제가능성을 의미하는 운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에서 제시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ey variables

	1	2	3	4	5	6	7	8
1. career preparation	1							
2. career barriers (mean)	-.272*	1						
3. Indecisive nature	-.192*	.699*	1					
4. Lack of information on career	-.239*	.853*	.443*	1				
5. Lack of self-clarity	-.255*	.792*	.5258*	.558*	1			
6. Lack of awareness	-.139*	.673*	.223*	.423*	.426*	1		

of necessity								
7. attribution style (effort/controlable)	.130*	-.265*	-.164*	-.145*	-.213*	-.313*	1	
8. attribution style (luck/uncontrolable)	-.037	.202*	.244*	.128*	.115*	.138*	-.089	1

#### 4.3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 Table 4와 같다. 먼저 진로장벽(평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적인 유의한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 = -0.229, SE = 0.048, t = -6.20$ ). 즉 여대생이 느끼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은 0.22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장벽의 4가지 하위차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에서 진로정보 부족( $\beta = -0.109, SE = 0.048, t = -2.26$ ), 자기명확성 부족( $\beta = -0.117, SE = -0.152, t = -2.58$ )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하위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 중 진로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은 0.10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 중 자기명확성 부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은 0.117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중 우유부단한 성격과 필요성 인식 부족의 경우에는 진로준비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Table 3. OL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barriers (mean)	$\beta$	$B$	$SE$	$t$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eer barriers (mean)	-.299	-.271	.048	-6.20***
constant	3.772	-	.129	29.03***
$F$	38.50***			
(df1, df2)	(1, 483)			
$R^2$	0.074			

주. \*\*\* p<.001, \*\* p<.01, \* p<.05.

Table 4. OLS Regression Results of Career Barrier Subfact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barriers (subfacter) -->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eta$	$B$	$SE$	$t$
career barriers :Indecisive nature	-0.047	-0.054	0.046	-1.03
career barriers :Lack of information on career	-0.109	-0.126	0.048	-2.26*
career barriers :Lack of self-clarity	-0.117	-0.152	0.045	-2.58*
career barriers :Lack of awareness of necessity	-0.008	-0.009	0.042	-0.18
constant	3.749	-	0.135	27.84***
$F$	10.49***			
$(df1, df2)$	(4, 480)			
$R^2$	0.080			

주. \*\*\* p<.001, \*\* p<.01, \* p<.05.

#### 4.4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다음으로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계는 다음에 제시되는 Table 5의 결과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노력의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이면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beta = 0.171, SE = 0.060, t = 2.83$ ). 구체적으로는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 가능한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력에 대한 귀인성향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소재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운의 귀인성향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Table 5. OLS regression analysis of attribution styl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tribution sty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eta$	$B$	$SE$	$t$
attribution style:effort (internal,controlable)	0.171	0.128	0.060	2.83**
attribution style:luck (internal,uncontrolable)	-0.026	-0.021	0.055	-0.47
constant	2.417	-	0.305	7.94***
$F$	4.28**			
$(df1, df2)$	(2, 482)			
$R^2$	0.017			

주. \*\*\* p<.001, \*\* p<.01, \* p<.05.

#### 4.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앞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귀인성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진로장벽 중 유의한 결과를 보인 진로정보 부족과 자기명확성 부족, 그리고 귀인성향 중 유의한 결과를 보인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노력'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주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 중 진로정보 부족( $\beta = -0.119, SE = 0.046, t = -2.61$ )과 자기명확성 부족( $\beta = -0.124, SE = 0.041, t = -3.03$ )은 이전 결과와 동일하게 부적인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 가능한 귀인성향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지만( $p < .10$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임) 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은 0.11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노력의 귀인성향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은 0.10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통제가 가능한 귀인성향인 노력을 조절변수(Moderator)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차원인 진로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과 귀인성향간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조절효과가 투입된 모형에서는 내적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귀인성향인 '노력'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beta = 0.446, SE = 0.217, t = 2.06$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OLS Regression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ttribution style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Attribution	Main effect model				Moderating effect model			
	$\beta$	$B$	$SE$	$t$	$\beta$	$B$	$SE$	$t$
Lack of information on career	-0.119	-0.137	0.046	-2.61**	0.300	0.347	0.336	0.89
Lack of self-clarity	-0.124	-0.162	0.041	-3.03**	-0.055	-0.071	0.298	-0.18
effort (internal, controlable)	0.101	0.076	0.059	1.7	0.446	0.336	0.217	2.06*
Lack of information on career * luck (external uncontrolable)					-0.106	-0.508	0.085	-1.25

Lack of self-clarity * : effort (internal uncontrol-able)					-0.018	-0.091	0.076	-0.23
constant	3.254	-	0.274	11.89***	1.886	-	0.871	2.16*
F	14.67***				9.39***			
(df1, df2)	(3, 481)				(5, 479)			
R <sup>2</sup>	0.084				0.089			

주. \*\*\* p<.001, \*\* p<.01, \* p<.05.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진로장벽 및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부정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진로정보가 부족하거나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소극적이라는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에서 정보부족과 명확성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40]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상담에서 자기이해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쉽다[41]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기명확성 부족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로 교육과 상담 현장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대한 자기탐색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로장벽으로 지각하는 것만으로 실천적인 행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이해를 돕는 활동과 더불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부 소재이면서 통제가능한 노력 귀인성향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귀인성향이 통제가능하고 내부에 소재하는 노력에 귀인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부 소재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운의 귀인성향이 높은 경우는 진로준비행동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상황이 나 사태가 나로 인한 것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길수록 즉 노력에 귀인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귀인성향이 학업의 성패 모두를 내적으로 귀인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귀인시킬 때 학습동기와 학업성취가 높다는 연구[30]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후의 행동이 달라져서 학업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내적요인으로 귀인하면서도 통제가 가능한 노력에 귀인할수록 높은 성취를 보인 연구[29]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에 운이라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의 주체의 속성이 아닐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불가능한 것이라 개인 행동차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귀인성향이 개인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노력에 귀인하는 사람은 진로준비행동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진로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자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진로장벽의 영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의 적용과 더불어 재귀인훈련을 통해 귀인성향을 변경시킴으로써 진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은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무엇이든 간에 귀인성향의 영향을 받아 진로준비행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귀인성향의 차이가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지만 여자 대학생의 경우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여 귀인성향의 조절효과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진로장벽을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 [5, 42]를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여자 대학생에게 진로장벽의 영향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내적 통제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여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단계에서 진로탐색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성별이 중요한 변수가 됨을 깨달으면서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성별 특성으로 진로설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성차별적



인 고용형태와 남성 중심적인 직장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진로장벽에 부딪치게 된다[43]. 실제로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5], 이에 대한 내적인 통제나 조절능력이 더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절효과가 미치지 않을 만큼 진로장벽에 압도되고 있다고 볼 때, 진로준비행동과 직결되는 장벽을 낮추는 개입 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변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진로장벽과 귀인성향의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영향은 진로장벽의 인식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에 비추어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로에 대한 장벽 중 자기이해와 진로관련 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진로탐색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개입 전략을 마련할 때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진로교육과 상담에 앞서 귀인성향에 따른 분류를 통해 차별적 개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인성향이 인지적인 측면이며 동시에 재귀인훈련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기에 내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요소에 귀인하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일개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대학의 여자 대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발하다는 연구[39, 44]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을 학년별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학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진로장벽의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각을 할 수 있는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B. K. Song & J. Y. Jeon.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 235-264. DOI: 10.0000/jecd.2013.20.1.0235

[2] G. D. Gottfredson.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3] E. R. Sohn. (2004). The Rol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623-635.

[4] Y. S. Jeon & H. Y. Kang.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for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4), 1483-1500.

[5] S. H. Lim & H. Y. Jeong. (2004). The Transition to the World of Work and Career Barriers of Women College Students: A Case of Local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14(1), 101-120.

[6] S. J. Lee & J. H. Yu. (2009).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Asian Women's Studies*, 22(3), 589-607.

[7] A. R. Cha & H. K. Lee. (2014).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Hope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1), 343-358.

[8] G. P. Ko & J. L. Ko. (2018). An Analysis of Social-support's Mediating Effect in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Perceiving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9), 439-468. DOI: 10.22251/jlcci.2018.18.9.439

[9] H. S. Park & H. J. Cho. (2018).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otiv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3), 591-616. DOI: 10.22251/jlcci.2018.18.13.591

[10] J. H. Park & H. S. Kim. (2009).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1), 125-144..

[11] J. H. Jo. (2007).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2] Y. J. Roh. & J. H. Kim. (2019).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adjustment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3), 265-283.
- [13] S. D. Brown, & R. W. Lent.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14] R. W. Lent, S. D. Brown, L. Nota & S. Soresi. (2004).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01-118.
- [15] L. Y. Abramson, M. E. Seligman & J. D. Teasdale.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16] Y. S. Eun. (2006). The Relation of Attribution Style and Career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819-835.
- [17] B. Weiner. (1995). *Judgement of Responsibility :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Guilford Press.
- [18] J. U. Kim & S. S. Park. (2011).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209-229.
- [19] M. H. Kim, & W. Y. Choi. (2014).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general female high school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83-107.
- [20] S. I. Shin & K. H. Kim. (2012). Assessing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s in Career-Decision Process: Through Comparing with the Predic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4), 1663-1677.
- [21] S. H. Lee. (2017).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9), 23-44. DOI: 10.22251/jlcci.2017.17.19.23
- [22] H. S. Lee & W. S. Park. (2008). The Study of Factors to Job Seeking Behavior related to Job Employment after College Graduation. *The Journal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05-117.
- [23] M. J. Lee. (2013). *Meta-analysis methods of variable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24] J. L. Swanson & M. B. Witke.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25] H. L. Swanson, K. K. Daniels & D. M. Tokar.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26] E. J. Oh. (2014).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4), 31-58.
- [27] M. J. You & A. K. Choi. (2008). Impa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19, 129-153.
- [28] S. O. Kim & E. J. Oh. (2019).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ulty and environment*, 17(1), 143-155.
- [29] C. Y. Woo & Y. H. Park. (2006).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attribution. *Journal of humanistic Studies*, 20, 231-254.
- [30] H. Y. Jo. (2008). The effect of learner's attribution tendency and parents'learning involvement type on motivation to learn.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1(1), 73-88.
- [31] H. G. Park & A. K. Yang. (2015). The effect of internal attribution, intrinsic motivation, learning effort on self-directed learning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5(4), 49-66.
- [32] R. W. Lent,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33] M. J. Kim. (2016).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89-107.
- [34] T. Y. Ko. (2008).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35] J. K. Tak & K. H. Lee. (2001)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Scale, *Digital Business Studies*, 1(1), 167-180.
- [36] H. Levenson.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In H. M. Lefcourt (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New York: Academic Press. DOI: 10.1016/j.ecd.2013.0.11068.9
- [37] K. S. Yoo. (1990). The Influence of Success and Failure Experience on Locus of Causality, Self-concept and Task-Specific Self-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Inquiry*, 6, 69-93.
- [38] B. H. Lee & G. S. Gim. (2009).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thinking

towards suicide and aggression and attribu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7(4), 323-342.

- [39] B.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40] J. Y. Shin, S. S. Park & J. E. Hyeong. (2012).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 on Research*, 25(1), 19-35.
- [41] Y. J. Woo. & K. H. Lee. (2010) The Relation between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Future: The Gender Differences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547-559.
- [42] Y. B. Kim, E. H. Ham & T. S. Kim. (2018).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female adult learners' career prepar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ll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8), 803-822. DOI: 10.22251/jlcci.2018.18.8.803
- [43] B. W. Kim. (2010).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4), 93-111.
- [44] H. J. Shin. (2016).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esting the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Th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2), 349-373.

전 희 정(Hee-Jeong Jeon)

[정회원]



- 1995년 8월 : 연세대학교 전산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2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웹기반 학습, 인지심리, 진

로교육

· E-Mail : jenny@kwu.ac.kr

이 순 덕(Soon-Deok Lee)

[정회원]



- 1995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1998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6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초등

특수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공학, 협력학습, 수업설계, 인지심리, 진로교육

· E-Mail : sdlee9195@hanmail.net